

두 얼굴의 오리들이 사는 허울뿐인 오일샌드

곽진경 회원, 노무사

그래픽 노블 <오리들>에는 온갖 문제가 엉켜 있다. 인류학을 전공한 케이트는 자신이 겪은 오일샌드를 “그린다.” 오일샌드에 간 이유, 그곳에서 겪은 일, 주변인들과의 관계, 중간에 도망친 이유.

오일샌드(Oil sand)는 유정이 함유된 모래나 사암층으로 석유 추출에 이용된다. 1960년대 선코어 에너지(Suncor Energy)와 같은 회사들이 오일샌드로 석유 생산을 시작했다. 1970년대 유가 파동으로 오일샌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1990년대부터 기술 발전으로 호황을 이룬다. 일자리를 찾는 수많은 캐나다 “오리들”은 앨버타 주로 향했다.

케이트는 “식탁에 빈 의자”를 하나 더 두고 고향을 떠난 오리 중 하나다. 학자금 대출에 짓눌린 또래의 젊은이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식탁에 빈 의자를 두고 왔다. 오일샌드는 돈을 벌려고 잠깐 머무는 곳. 그러나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도 모아야 할 돈이 있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니까. 그렇게 그들이 떠난 지역은 사람이 사라진다.

죽어가는 오리들

2008년 5월 석유 채굴 작업 후 남은 오염수 웅덩이인 테일링 연못에서 수백 마리의 오리가 떼죽음을 당한다. 우리는 오일샌드 노동자들을 대변한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저급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이 된다. 어떤 이는 고향에 돌아가며 ‘저급하지 않은’ 자신으로 되돌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다. 오일샌드에서 오리들은 생물학적 죽음에 이르지만, 사람들은 정신적인 죽음에 이른다. 어떤 모습으로든 그렇게 된다.

책에 인용된 기사에 따르면 오리의 떼죽음은 싱크루드社가 새들의 도래를 주정부에 알

리지 않았고, 새들을 쫓아내는 소음 발생기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리 떼죽음에 대한 싱크루드社의 대처는 코미디에 가깝다. 습지 주변에 물새 쫓는 장치를 설치해 총소리를 내고, 느닷없이 오일샌드 한가운데 허수아비를 세운다. 눈 가리고 아웅 격인 해결책은 다른 모든 문제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젠더 폭력

케이트는 앨버타 주에 도착하자마자 성희롱에 노출된다. 남성 50명에 여성 1명꼴인 이곳에서 성희롱은 일상이다. 케이트의 얼굴을 보려고 남성들이 공구실 주변을 빙 둘러싼 일도 있었다. 놀란 케이트가 그곳에 가기 싫다고 말하자, 관리자 제프는 케이트가 감당할 일이라며 특별대우는 없다고 한다.

이후 일련의 사건을 통해 케이트는 어떤 일을 신고해도 징징대는 소리 취급을 받을 거란 생각에 침묵한다. 케이트의 친구 린지는 그곳에서 벌어지는 성희롱과 남성 중심적 문화를 다룬 기사를 기고했다가, 오일샌드 남성들의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 결국 케이트는 오일샌드를 떠날 때 프로젝트 매니저 게리와외의 면담에서 성희롱을 언급한다. 게리는 실상을 전혀 모르면서, 그저 유감스럽다는 말과 함께 보너스 전액을 약속한다.

제2, 제3의 케이트가 오일샌드에 다시 오더라도 목소리를 낼 순 없다. 허울뿐인 성희롱 신고 규정은 누구도 돕지 못한다. 공식적으로 신고해도, 비공식적으로 항의해도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한다. 모두가 오일샌드에서 여성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일샌드니까. 성폭력을 당한 그녀가 그린 만화의 한 장이 새까맣게 칠해졌다는 사실은 가슴을 서늘케 만든다.

환경

오일샌드는 큰 이익을 창출했지만, 환경을 파괴했다. 너무나 당연한 문장이라 오히려 어색하다. 오일샌드 만화를 그리기로 다짐한 케이트는 인터넷에서 여러 영상을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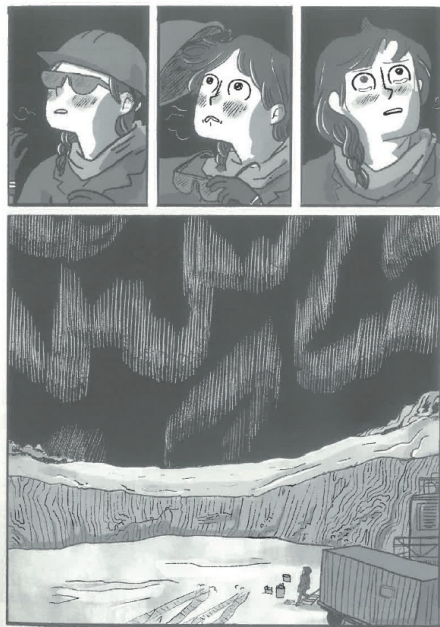
원주민 셸리나 하프는 테일링 연못이 유출되어 애서베스카강 하류로 오염수가 흘러들고 있다고 진술하며, 앨버타 주를 둘러싼 서른 군데의 공장이 모두 사라진 뒤의 땅을 걱정한다. 셸리나는 “회사들에게는 전능한 달러가 언제나 최우선이죠.”라고 자조한다.

오리떼의 죽음 이후 싱크루드社에 300만 달러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전능한 달러”가 땅을 회복시키진 못한다. 주민들은 암에 걸려 죽어간다. 역시 허울뿐이다.

안전

오일샌드 회사들은 입사한 노동자에게 교육이랍시고 기계에 손이 절단되는 기괴한 영상을 보여준다. 회사를 옮겨 다닌 케이트는 곧 이 영상이 지켜워진다. 앨비언 샌드사는 직원들에게 “근로 손실 재해 없이 300만 인시(人時) 달성”을 축하하는 이메일을 보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제럴드 스노프를 포함한 여러 사람은 현장에서 사망한다. 창고 감독 라이언은 사람이 죽어도, 사람들 반이 속닥대며 농담이나 하는 상황을 한탄한다. 형식적인 교육과 선전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케이트 비턴의 그래픽 노블 <오리들>(김영사, 2024)의 한 장면.

두 얼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대책들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 다면적인 오리들이어야 할 것 같지만, 오리들이 고민은 할 수 있으려나. 이들이 오일샌드에서 다른 모습을 하는 이유는 뭘까.

케이트는 빛을 볼 수 없는 오일샌드에서 사람들이 “지루함, 고립감, 외로움, 우울감에 빠져들었고, 어떤 이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싱크루드 오로라의 정비주임 앰브로즈는 “여기서 우린 모두 두 장소에 있는 셈이지. 그리고 저마다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붙들릴 수 있고. (...) 하지만 자기가 사는 유일한 인생이 다른 곳에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일갈한다.

지치고 외로운 오리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상처를 입거나 입힌다. 허울을 걷어내고 실체를 찾아야 하지만, 어차피 오일샌드는 곧 떠날 수도 있는 곳. 오리들도 역시 허상으로 살아간다. **알터**